**Korean versio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신임 특별보고관, 동북아 첫 방문**

제네바 / 서울 / 도쿄 (2016년 11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내 인권에 관한 신임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가 11월 16일 부터 22일 사이 대한민국, 이어 11월 23일 부터 2 6일 사이 일본을 방문한다. 임기 내 첫 방문이다.

10일 간의 동북아 지역 방문 동안 특별보고관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만나 직접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최근 전개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신임 특별보고관은 2016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 방문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관계자, 탈북자, 납치피해자 가족, 시민사회 관계자, 언론관계자를 비롯한 여러 관련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특별보고관은 밝혔다.

2004년 해당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이 신설된 이래, 해당 위임권한 수행자는 지속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방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전임 특별보고관 들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본, 태국 및 대한민국 등 역내 기타 국가를 방문했다.

특별보고관 오헤아 퀸타나는 서울에서 11월 22일 (현지 시간 기준) 17시부터 18시까지 기자회견을 갖고, 도쿄에서는 11월 25일 (현지 시간 기준) 16시에서 17시까지 유엔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 출입은 언론관계자로만 철저하게 제한한다.

방문 기간 동안 파악한 내용 및 권고는 특별보고관이 2017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반영된다.

끝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보고관은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인권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

*서울유엔 인권사무소 웹페이지:* [*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영어:Tarek Cheniti*** *(+82 10 2746 3522/* *tcheniti@ohchr.org**)*

***한국어:Younkyo Ahn*** *(+82 10 4230 3523 /* *yahn@ohchr.org**)*

***일본어: Yu Kanosue*** *(+82 10 2809 3524 /* *ykanosue@ohchr.org**)*

기타 유엔 위임권한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비어 셀라야(Xabier Celaya)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

**언론사 뉴스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관련:** 보도자료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핸들(아이디,주소)을 이용해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Twitter: [@UNHumanRights](http://twitter.com/UNHumanRights)
Facebook: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www.facebook.com/unitednationshumanrights)
Instagram: [unitednationshumanrights](http://instagram.com/unitednationshumanrights)

Google+: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plus.google.com/%2Bunitednationshumanrights/posts)
Youtube: [unohchr](https://www.youtube.com/user/UNOHCHR)